

여야, '국정원 國調' 하자 건지... 말자 건지...

양당 원내대표 회담 "6월 국회 처리 노력"만 합의

국정원개혁·정치쇄신·민생법안도 차질없이 통과

여야는 20일 국가정보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회담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직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안이다.

두 원내대표는 또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을 즉각 개시하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정치쇄신 및 민생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차질없이 통과 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국민연금기금 운용부부를 전복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한다는데도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노력한다'는 것이 어떻게 합의가 될 수 있는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처리한다'는 표현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부의장은 "합의사항으로 '노력한다'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면서도 "그래도 새누리당 쪽이 무작정 거부해 파행의 책임을 지기 곤란해 '노력한다' 정도로 합의한 것 같다. 우리도 (요구한 대로) 한 번에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에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의장은 또 "우리 쪽에선 합의 하라고 추궁 압박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책임은 피하려고 소극적으로 응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는 계속 불씨를 이룰게라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연주 원내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한 것 아니다"며 "다만, 6월 국회에서 연다고 '노력한다'는 것이라 꼭 이변 회

기 중에 못해도 7월에 할 수도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3월에 이미 합의해 놓고 지금 와서 부정하지는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없는 합의'란 지적에 대해 이 대변인은 "당연히 우리는 강력한 요구를 했고, 해왔고,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요구해도 새누리당이 안 받으면 합의가 안 된다"며 "우리가 전면 보이콧을 하면 새누리당이 더 좋아할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일각의 강력한 투쟁 요구에 대해서 이 대변인은 "지도부 내에선 국회를 하면서 제한적 장외투쟁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의 요구 없이 무작정 우리가 뛰쳐나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노력'의 의미에 대해 양당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여야가 향후 구체적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민주당이 빨리 수사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 감금 등이 안료돼야 검찰 수사가 종료된 것이라는 기존 새누리당 시각을 그대로 보인 것이다. 반면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이번 합의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권 '싱크탱크'

대폭 개혁 잇따라

'정책경쟁' 대비하나

여야 정치권이 최근 잇따라 '싱크탱크'를 대폭 개혁하거나 새로 만들면서 본격적인 정책경쟁을 예고했다.

가깝게는 내년 지방선거, 멀게는 차기 총선과 대선에 대비해 정책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여의도연구소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소장에 이례적으로 4선의 이주영 의원을 임명해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등 연구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1명인 상근부소장으로 2명으로 증원하고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연구위원을 임명하기로 하는 등 자율성도 강화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민주당정책연구원 세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중앙당 전략기획 기능을 정책연구원 정책전략실에 넘기는 등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이는 중앙당 사무처를 슬림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당 싱크탱크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전략적 고려도 작용했다.

독자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정책역량 강화에 가장 역점을 뒀다. 싱크탱크격인 '내일'을 창립했고, 이날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갖는 등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내일'은 이제 제대로 일을 시작한 지 1주일밖에 안돼 당장은 조직을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싱크탱크인 '정확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 창립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에 기반을 둔 정당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다음달 지역별 세미나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20일 안 의원측에 따르면 '내일'은 다음달 중·하순에 첫 지역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대전·전주·광주·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놓고 개최 순서를 고심하고 있다. 지역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각 지역에 산재한 지지조직인 '지역포럼'을 결집하고 새로운 인재 영입을 시도함으로써 지역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하려면 안 의원의 이념적

안 '내일' 전국화 시동

내달부터 광주 등 대도시 순회 세미나

지역별 지지세력 결집·인재영입 나서

표표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에서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전국을 도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내일'은 안 의원의 정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신당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에서 지역순회세미나 개최는 사실상 전국 세력화에 본격 나서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

이를 위해 첫 지역 세미나의 주제는 선거제도 개편 등 기존 양당 중심의 정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치 제도 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 추진이 본격화되기 전에 안 의원측 내부에선 노선에 대한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전남 '내일'의 회장인 이시장은 '진보적 자유주의' 노선을 설명하면서 "센터-레프트(중도 좌파)에 가까울 것"이라고 정치적 좌표를 규정했다. 하지만, 안 의원의 최측근인 송호창 의원은 20일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좌우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좌와 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고 말해 입장차를 보였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임내현, '5·18 역사왜곡 방지법' 발의

민주당 임내현 의원은 20일 역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확히 한 내용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 법안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항,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발생한 민주화운동"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임 의원은 "그간 5·18 관련법에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명확



한 정의가 없다 보니 일부 방송과 네티즌이 5·18과 관련한 허무맹랑한 주장 등을 펼치는 등의 역사왜곡이 생겨났다"며 "관련법 개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다시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 광주은행 지역환원 간담회 개최

민주당 강기정(광주 북구 갑) 의원은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금융위원회와 '광주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광주은행 분리매각의 원칙과 방향이 결정될 오는 26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는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상공회의소, 광주은행 노조 대표자들이 참



석해 신계운 금융위원장에게 지역환원을 위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신계운 금융위 사무차장, 손병두 공자위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김승남, '보성군 지역발전포럼' 열어

민주당 김승남 의원(보성·고흥)은 21일 오후 2시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보성군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김기훈 농림축산식품부 과장, 이견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의 주제발표와 함께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 이문웅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문 패널들이 참가해 새 정부의 농촌정책 방향 및 최근 관광 트렌드인 '힐링'을 접목한 관광콘텐츠 개발, 귀농·귀촌 전략 방안이 논



의된다. 김 의원은 "보성 녹차와 자연재배 작물이 가진 힐링 기능을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고, 도시에 거주민들이 농촌으로 다시 돌아오는 방안을 찾기 위해 포럼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상보육 국고지원 관련법안 6월국회 통과 난망

무상보육 예산에 국고 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자치단체의 기대와 달리 이달에 국회를 통과하기가 어려워졌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법사위에 머물러 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현행 20%에서 40%로, 나머지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 기조에 따라 작년말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7개월째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2013년 10월 1일 OPEN

3.3㎡ 당 임대료 200만원 지하 수영장 3.3㎡ 당 80만원 볼링장, 골프장 3.3㎡ 당 150만원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